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과 미래의 전망*

Identity and a view to the futur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

구 본 영(Bon-young Koo)**

목 차

- | | |
|-----------------------|--------------------------|
| 1. 서론 | 2. 2. 1 정보전문직의 정의 |
| 1. 1 연구목적 및 배경 | 2. 2. 2 정보전문직의 역할 |
| 1. 2 연구방법 | 2. 2. 3 새로운 직종의 정보전문직 |
| 1. 3 선행연구 | 3.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전망 |
| 2.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 | 3. 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
| 2. 1 사서직의 정체성 | 3. 2 전통적인 도서관 대 가상도서관 모델 |
| 2. 1. 1 사서직의 차별화 된 기능 | 3. 3 이용자 중심 서비스 |
| 2. 1. 2 사서직 전문성의 타당성 | 3. 4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과 역할 |
| 2. 2 정보전문직의 정체성 | 4.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을 밝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교과과정, 전통적인 도서관 대 가상도서관으로의 변화, 전통적인 기술 업무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 그리고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과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서직의 가치는 인문학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의 지혜를 증진시키고, 오락을 제공하며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식과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사서직 기능). 그런데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보형태는, 적절한 정보를 적자(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창출을 위한 정보전달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정보전문직 기능). 현재 우리는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환경을 함께 맞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기록정보를 보전 전승하는 문화적인 기능이 강하고,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전달과 정보공유의 기능이 강하다.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사서직과 정보전문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규명은 필요한 연구이다.

ABSTRACTS

The Study focused on the four area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changing identity of the LIS Professionals, and change in LIS curricula. Second, the study addressed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library to the virtual model. Third, the study asked how the traditional technical service of LIS professionals is changing to user-centered service. Finally, the study viewed the skills and the roles of the LIS professionals.

키워드: 가상도서관,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전문직, 사서직, 이용자, 전통도서관, 정보전문직

- * 이 연구는 200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영상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bykoo@swu.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3일

1. 서론

‘문헌정보학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먼저 사서직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사서직은 전문직으로서 서비스가 목적이며, 이용자와 공적인 기록의 지식을 중재하는 사서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사서직은 도서관에서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공공복지 차원의 서비스 학문이다.

전통적으로 사서직의 가치는 인문학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의 지혜를 증진시키고, 오락을 제공하며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식과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보형태는, 적절한 정보를 적자(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창출을 위한 정보전달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환경을 함께 맞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기록정보를 보전 전승하는 문화적인 기능이 강하고,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전달과 정보공유의 기능이 강하다.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사서직과 정보전문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앞으로 사서직/정보전문직은, 셀프서비스

사회에서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보 검색을 위한 이용자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며, 원격이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사서의 세부적인 주제지식과 정보기술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어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으로서, 정보전문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찍이 셰라(Shera, J. H.)는 문헌정보학의 교육내용을, 교양적인 면과 학문적인 면 그리고 주제지식의 숙달을 강조하면서, 문헌정보학의 인문학적인 면과 사회과학적인 면 그리고 자연과학의 학제적인 성격의 학문임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문헌정보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보학의 기초는 전통적인 사서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경험이 쌓인 것이며, 수 백년이 넘도록 서지 편찬을 통해 문헌을 편목하려는 많은 시도와 듀이십진체계(DDC)를 통한 지식의 편목이, 정보학의 기원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시작이 도서관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도제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과 기술로 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학문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 전자자원이 도입되면서, 도서관 업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인 성격도 정보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보학의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1. 1 연구목적 및 배경

이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과 교과과정 그리고 Delphi연구에서 밝힌, 전통적인 도서관 대 가상도서관, 전통적인 기술업무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 문제,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과 역할에 대한 전망을 소개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환경을 함께 맞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기록정보를 보전 전승하는 문화적인 기능이 강하고,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전달과 정보공유의 기능이 강하다.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사서직과 정보전문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규명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전망해 보는 것은 필요한 연구이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의 도래는 사서직/정보전문직의 종합적인 평가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5년간의 기술 발전, 즉 전자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봉사, 씨디롬(CD ROMs), 그리고 인터넷 도입은, 특히 최종 이용자를 위한 정보에 대한 급속한 접근 변화를 가져왔고,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정보검색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는, 적절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정보 분야는 도서관 정보센터분야로 확대되어 왔고, 정보의 배포, 조직, 처리 문제는 산업체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인, 정보보전, 편목, 분류, 이용자 서비스는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의 문헌정보학과는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많은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경험하고 있는 예측될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용자가 정보를 직접 검색하는 일이다. 반면에 이용자가 과연 중개자로서의 사서의 도움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전자매체로서 대다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상도서관으로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저자는, 웹(web)은 도서관의 대체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Baruchson-Arbib and Bronstein 2001). 그리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 정보환경에서 도서관과 사서/정보전문가는 이용자를 도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고, 문헌정보학과는 이러한 발전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들을 계속 변화 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도서관 변화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터넷이다. WWW는 수많은 비 조직화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사용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첫째, 수많은 검색 가능한 정보의 양은 인터넷 탐색을 통해 가능하고, 이것은 특정 주제에 대해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활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비율은 인쇄된 자료의 양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편이다. 게다가 많은 인쇄된 자원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완전한 디지털 버전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웹 상에서 활용 가능한 많은 정보자원들은 유용성 기준에 따라서 타당하게 확인할 수 없다. 대다수의 웹 자원들은 전문가나 기관의 승인 없이 개인에 의해서 발간되어 왔다.

셋째, 작고 사소한 수집물의 구조나 조직(structure or organization)이 대부분 존재한다. 인터넷으로부터 연구자의 의해 검색된 정보는, 검색 엔진과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용자의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Griffith 1999). 오늘날 정보를 처리하고 검색하고 여과하며 평가하는 전문적이고 능숙한 정보전문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지 과거에서처럼 도서관의 자료를 조직하고 서가상의 배열된 자료를 찾는 역할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Adams 1997). 오늘날 많은 이용자들은 그들 자신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 부적절한 많은 정보로 인해 곤란할 때 도움과 조언을 받기 위해 정보전문직을 찾아온다(Schulman 1998).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 전문직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인쇄된 자료와 전자매체인 정보의 수집이다. 나머지 다른 한 가지 요소는 편목, 색인, 참고업무와 같은 업무활동의 지능적인 “도구(tool set)”의 사용이다. 문헌정보학전문직의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 도서관을 장소로서 보다 개념으로서 보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넓히기 위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서나 시설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

리하고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Panel 1990).

1. 2 연구방법

현재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 규명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국내·외 여러 논문을 연구조사 한 것이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이스라엘의 40명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시행된(1998~2000) Delphi 연구의 결과이다. Delphi 연구 참가자들은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과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도서관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가능성 있는 적절한 진술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가 이스라엘에서 수행되고 있는 동안에, 매우 큰 연구 프로젝트 KALIPER(1998~2000)가 미국에서 수행되었다. KALIPER 프로젝트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 13개 프로그램과 20개의 학술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교육 내에서 주요 교과과정 변화의 범위와 성격을 규명한 것으로, 이미 구본영(2000) 논문에서 발표되었던 것이다.

1. 3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에서, 사서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Abbott(1988)는 사서직의 전문적인 위상을 사서들이 지닌 정보 능력과 기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사서는 교육이나 오락을 조직하고 배포하는 문화적 유산의 관리권을 주장하였다. Nielson은 전통적이고 고

전적인 참고사서의 변화된 요인을 밝히고, Mason(1990)과 Winter(1998)는 정보전문가의 역할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Birdsall(1982)은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전문직의 목적을 밝히면서, 정보전문직이 정보접근과정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Debons(1985)은 사서의 미래 역할을 “정보중개자(information intermediary)”로서 정보의 진단, 처방, 평가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은경(2002)과 김용(2002)은 정보전문직의 정의, 기능, 새로운 직종으로서 정보전문직을 소개하면서 정보전문직의 역할을 단순한 정보수집에서 벗어나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순조롭게 지원하는 주제전문가, IT전문가, 정보전문가로서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지식조직화와 교화의 기능을 강조하는 정보전문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가상 도서관의 모델로 도서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면서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도서관의 기술적 봉사의 아웃소싱을 고려하기 위해 도서관이 겪어온 재정적인 제약조건들(Neal 1996; Siess 1997; Waite 1995); 이용자 중심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재건축(Basefsky 1999; Coutts & Hoffert 1997; DeVinney 1994; Mason 1996), 미래의 도서관 모델에 대한 설명(Borgman 1996; Sever & Harel 1995) 등이 있다.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기꺼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전문직은 지난 수 백년

동안의 주요 기술적 혁신을 우선으로 도입했다. 즉, 그들은 이전에 마이크로필름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씨디롬과 인터넷을 사용했다(Dysart and Abram 1997).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도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전문직들은 주요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 연구를 위해 검토된 문헌은 도서관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측면을 제시한다. 한 가지는 사회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같은 기술과 능력을 강조하는 요구이고; 다른 측면은 도서관과 정보를 관리하는 다른 환경 내에서 기술과 정보 기술을 좀 더 개발하려는 요구를 언급하고 있다.

문헌 내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한 가지는 사서의 고유한 정보기술과 기능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행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보전문직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요구이다. 사서는 그들의 기술을 구축해야만 하고, 자신감 있게 이용자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고취시키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정보환경은 변하여 왔지만 방법과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다(Jackson & Chey 1997; Agada 1994, 1996). 정보시대의 정보전문직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도서관 장벽을 넘어 새로운 업무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정보전문직 내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교육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Dinerman 1996; Knuth 1994; Douglas 1999). 더 나아가 정보전문직은 대중에게 정보 대변혁을 가져다주고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곳도 도서관이다. -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미디

어센터(Crosby 2000), 게다가 교육시키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들은 거의 모든 수준에 있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연구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개발에서 문헌정보학전문직의 성격과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연구에서, 사서는 인터넷사이트개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서는 사이트구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둘째로 사서는 사이트에서 유출되는 데이터구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Garrod 1999; McQueen & DeMatteo 1999). 정보 구조는 우선적으로 사이트에 초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외에 정보탐색의 논리성을 확립하고 사이트탐색을 위한 요소를 정해야 하며, 정보의 위치와 내용을 결정하고, 분류구조를 정하고 전반적으로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술, 공공사서들은 정보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그들은 디지털 자료를 정리 조직한다. 즉, 스캔 받은 사진과 문서, 그리고 디지털화된 비디오 테이프 등을 사람들이 하나의 자료에서 다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예를 들면, 이야기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뉴스에 링크 한다(Crosby 2000). 그립프스(Griffiths 1999)에 의해 논의된 정보전문직의 또 다른 측면은, 분석가와 지식해석자의 역할이다. 전통적으로는 무시되어온 사서의 역할이지만 많은 요구가 있고, 참고사서의 성격을 평가하는 한 가지가 될 것이다. 활용 가능한 정보컨텐츠가 있는 정보 환경에서 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적합한 정

보를 검색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도움도 필요하다.

새로운 직업들이 부상하고 있고, 과거의 직업들이 문헌정보학 내에서 변화되고 있다(Crosby 2000; Horton 1994; Moon 1997; Vlasak 1997).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도서관과 정보센터와 협력한다. 특수도서관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더욱더 사서들이 뛰어난 연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고, 인터넷 서핑 할 때도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더 시급해 지고 있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전문직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고도함(Godderham)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졸업생 60% 이상이 전산시스템 부서, 인터넷디자인, 전자정보처리와 같은 영역에서 직업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레고리(Gregory 2000)와 라미레즈(Ramirez 2000)는 그들의 문헌정보학 직업경향과 봉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2.7%의 졸업생이 그들의 업무지위는 도서관의 어떤 능력(기술)에서 고용된다고 대답했다. 테렐(Terrell 2001)과 그레고리(Gregory 2001)는 그 후 1년 후 98.1%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

2.1 사서직(Librarianship)의 정체성

사서직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는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을 해왔다. 이러한 자각

적인 반성은 꽤 발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1876년 듀이는 Library Journal 첫 번째 출판사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였다. “사서를 아무 거리낌없이 전문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그의 설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직 문제에 관한 중요성은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이해관계가 높다.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은 사서의 위상과 동시에 임금 그리고 권위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1. 1 사서직의 차별화 된 기능

사서직의 전문적인 위상은 사서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이용자나 고객이 전문가의 지식에 특별한 신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Abbott 1988 p.5). 도서관과 사서를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들의 권위에 따라 도서관이 유일한 방법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쉽게 접근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잘 조직 되어진 실제적인 장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리고 적절하게 자료를 배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서를 두었던 것이다. 적어도 독점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은 사서에게 지식의 몇 가지 형태에서 제한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Abbott(1988)는 사서가 통제하는 정보를 “질 높은 정보”로 규정하고(p.216), 그와는 대조적으로 회계사나 통계자 그리고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정보는 양적인 정보로 보았다. 사서는 교육이나 오락을 조직하고 배포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적 유산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Abbott 1988 p.217).

그러나 현재 사서직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다른 정보 대행자(agency)와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경쟁은 전문적 지배권(jurisdiction)을 얻기 위한 투쟁을 초래하고 있다(Abbott 1988).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도서관 업무의 내부적 기능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Nielson의 말을 빌리면, 어떤 참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참고 사서의 모델은 놀랄 만큼 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포함되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의 내부 외부 모두에서 원격 이용자나 지역 이용자들의 검색 시스템의 이용 증가, 일상적인 질문과 비 일상적인 질문에 모두 대답하기 위한 아이콘 바탕의 인터페이스를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장

2) 다양한 컴퓨터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익숙한 이용자 수의 증가

3) 도서관 이용자들의 일상 업무를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향상된 소프트웨어 상품의 이용 증가

4) 계산 능력과 문자, 수, 그래픽 데이터가 기계가독 형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활용성

최근에는 컴퓨터, 모뎀, 또는 전용선 그리고 국가정보기반구조(NII)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꽤 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의 주요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의 접근이 “가상도서관”에 대한 접근으로 묘사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서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다면 이 통제력은 앞으로 약화될 수 있다.

Manson(1990)은 도서관 직업의 특징을,

정보 전문가라는 넓은 의미로 볼 때 앞으로 퇴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정보 전문가를 회계사, 기록 보관인, 사서, 기록 관리자, 정보 시스템 분석가, 관리 과학자, 그리고 박물관 큐레이터의 7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Manson에 의한 정보 전문가의 역할은, 가장 적절한 제공처로부터 받은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적절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보 전문가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Winter는 이 분야에 대해 눈에 띄는 차별화 된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서의 3가지의 주요 기능을 규명하였다. 첫째는 조직하기 위한 지식의 분류, 둘째는 지식들이 제대로 잘 접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 정보의 색인, 셋째는 지식의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이다. 사서직은 오직 한 분야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많은 지식의 조직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통합과학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사서는,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서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기능에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은 아니고, 다른 직업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nter는 “이용자와 공적인 기록의 지식을 중재하는 것은 사서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사서는 도서관의 제한된 활동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인 기능을 추가 제공해 왔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공공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 해당된

다고 볼 때,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전문직이 사회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그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원, 변호사, 의사, 교사, 간호원, 사회사업가 모두가 그러한 전문직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업들은 주로 경제나 산업 분야와 같은, 이윤 증대를 목표로 하기보다,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Abbot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직업들은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사회와 동떨어진 것”으로 표현된다. 사서는 도서관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질 높은 공공 정보의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공공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서는, 지식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사, 경영 관리자, 컴퓨터 과학자, 또는 시스템 분석가들과는 다른 정보 전문가들에게만 부여된 책임이다. 사서의 중요성은 그것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사서의 중요성은 자료원의 마스터, 조직적인 기술 또는 기술적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서들이 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중요하다. 사서라는 직업이 막대한 양의 인쇄물, 오디오, 그리고 전자 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박물관 큐레이터나 역사적 사회 전문직(historical society professionals)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점이다.

2. 1. 2 사서직 전문성의 타당성

사서직의 특징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전문직이라고 부

를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전통적으로 그러한 논쟁은 좀더 보편화된 전문직 규정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서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문직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의 지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이론적 지식을 갖는다. 실무자는 지식의 틀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지식의 원리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보통 공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

2) 실제적인 자치권을 갖는다. 보통 전문직에서는, 그들의 직업적 판단에 따라 실행하고 그들의 직업적 범위 내에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데 자유롭다.

3) 규정된 윤리나 자격증을 통해서 실무자(practitioners)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 전문가(profession)는 그들 직업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실무자가 전문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권위를 그 직업에 부여해주는 확고한 규정을 갖는다. 이것은 때때로 구조적인 힘이라 한다. 실무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직업 수행에 필요한 힘을 끌어내는 것은 보통 한국도서관협회(KLA)와 같은 전문직 협회에서 부여받는다. 전문직에서의 행동 수칙은 법에 의해서 성립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각각의 전문직협회에서 제공되는 규정에 의해서 성립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는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취소와 같은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는 전문가들의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회는 여전히 전문가의 업무와 업무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과 기준을 통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을 관장한다. 이러한 협회는 그 협회의 전문가들에게 군림하는 구조적인 힘보다는 기준을 세우는 규범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4)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타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이러한 전문직은 사회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그 직업의 사명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중요한 봉사를 하고, 그들의 가치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업무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봉사(calling)”다. 이것은 직업의 기원이 성직자(clergy)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직업적인 신념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본 직업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중반에 급격하게 증가했다(법, 의학, 간호, 교육, 사서). 그리고 이러한 직업들이 공장 지향적인 직업과는 대조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직은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5) 그 직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권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법, 의학과 같은 전통적인 전문직 분야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은 그들의 분야에서 유일한 통제권을 갖는다.

6) 전문직 협회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협회는 그들 구성원들에게 직업의 정체성을 제공하고, 교육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규정하는 일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들을 인증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동기준

을 강화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집중화된 포럼과 연구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 전문직의 정보와 연구를 배포하는 간행물을 발행하기도 한다.

사서는 위와 같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사서는 서비스 지향적 직업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직업이라기보다 타인 지향적인 직업이다. 사서라는 직업은 각종 학회를 개최하고, 간행물을 생산하고, 각종 윤리 규정을 정하는 전문 협회를 가지고 있다. ALA의 경우, 이것은 인증의 기능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을 검토해 볼 때, 사서라는 직업은 중요한 부분에서 이러한 자격에 못 미치고 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전문 협회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실무자들의 자격에 관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전문직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나 처벌조치를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록 이 분야가 사서의 업무와 행동 기준에 대한 권위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서직에 의해서 행사되어질 수 있는 독점권이 없다. 이론이 부족한 학문이고, 공식적인 교육이 주로 이론적인 지식이나 원리적인 것보다는 단순한 실습으로 구성된 점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1년 정도의 공식적인 대학원 훈련 과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에서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광범위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서의 전문직의 특징은 심각하게 비판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전문직이 갖고 있는 특정한 기술의 깊이는 측정하기 힘들고, 전문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

는 기준의 정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사서를 전문직으로서 간주하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통제 모델(control model)"를 사용한 Winter에 의한 논의에서 살필 수 있다(1988). 이 관점에 의하면, 전문직의 특징은 실무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과, 전문직 파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강조되는 점은 직업(occupation)과 전문직(profession)은 사실상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것이다. 전문직은 직업을 통제하는 일련의 실무이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전문직은 특정 직업(particular occupation)이라기보다는 협회(unions)와 같은 것이다. 전문적인 통제 모델은 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과 고등 교육의 학위를 강조한다. ,

그러나 이러한 통제 모델은 그 직업의 실무자들만을 통제하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사실 전문직의 지적인 활동을 지배하는 3가지 통제 형태는 조직 통제(collegial control), 이용자 통제(client control), 중재 통제(mediated control)가 있다. 조직 통제에서 직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된다(예: 의사, 변호사). 이용자 통제에서 직업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구, 필요, 그리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서 제공해야 한다(예: 사서). 중재 통제는 조직 통제와 이용자 통제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Winter(1998)는 거의 모든 전문직이 중재된 통제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의학 분야에서조차, 환자들은 그들의 의학적 치료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썬 더 많은 치료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사서직도 이제는 중재 통제 범주에 들어간다. 몇몇 이용자들은 정보를 직접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는 사서를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특정한 정보를 사서가 직접 찾아 주기를 요구할 것이고, 사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보 기술의 확산은, 아마도 전문직 통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Birdsall(1982)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비 전문화나 새로운 전문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컴퓨터화는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Winter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더욱더 이용자 통제 모델로 진행됨을 뜻한다. Birdsall에 의하면, 새로운 직업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지식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self-service)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문직의 목적은, 지식을 통제하고 이용자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가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자족(self-sufficient)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교육시켜야 한다. Birdsall은 사서, 사회사업가, 그리고 교육과 같이 도움을 주는 전문직은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은, 사서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통제의 유형과 양은, 다른 전문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전문직의 위상과

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정치적인 힘은 이러한 정보를 창조하고 배포하는 통제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증가는, 누가 정보에 접근하고 어떤 유형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에 접근하는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분야의 정책과 실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성을 인식해 왔고, 그들의 역할과 공헌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사서가 정보의 전달과 조직에 대해서 유일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된다면, 그리고 만약 사서가 정보 배포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로 보여 진다면, 사서는 정보 접근 과정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2. 2 정보전문직(Information Profession)의 정체성

2. 2. 1 정보전문직의 정의

혼돈한 정보 세계에서 사서는 과연 정보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서만큼 친숙한 사람은 드물다. 정보과학자들과 관련시켜 보면, 사서는 단지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정보요구를 개발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서는 이용자 자신의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정보 시스템 이용과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사서 업무의 대부분이, 급격하게 변

하는 정보 기술에 의하여 정보전문직의 업무로 형성되어질 것이다. 특히 도서관 외부에서 발견되는 엄청난 정보의 증가에 따라, 과연 미래의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Rice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그 동안 도서관 장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갖지 않았던 사서들이, 예전과는 달리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정보가 이용자에게 좀더 가치가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Ric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정보를 발견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정보를 분류해서, 어떤 정보가 이용자에게 최상의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일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Rice는 미래의 사서는 상담과 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 각 개인에게 조언할 때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해야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사서직/정보전문직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이용자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못 찾을 것이고, 정보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정보 자원의 가치와 신뢰성 있는 상담과 조언을 기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사서직/정보전문직의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사서직/정보전문직은 Debon(1985)이 말한 것과 같이, 적어도 다음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 중개자(information intermediary)”로서 정보전문직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진단 : 정보 요구를 추정한다. 진단자로

서 사서는 이용자의 개인적 능력과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 적절한 정보 형태, 비용 그리고 전송 수단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인터뷰를 수행한다.

2) 처방 :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한다.

3) 평가 : 진단과 처방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한다.

위의 모델이 다소 의학적인 특성이 있고 정보전문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전문직이 주로 봉사하는 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중심은 이용자들의 특별한 요구와 문제점을 적용시킬 수 있고, 도서관을 정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을 재 구조화하고,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정보 시스템이 만약 그것이 통계청의 요구보다 이용자 요구에 더 적합하게 부합될 수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서들이 정보 접근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들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만족하는 구체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사서직/정보전문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 기술의 성장을 통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것이다.

김은경은 정보전문직의 새로운 역할을 구명함에 있어서 미국정보전문직단체(SLA)의 정보전문직(Information Professional)에 대한 정의, Jose Marie Griffiths의 새로운 정보전문직의 특징, 그리고 Chun WeiChoo의 조직의 지식활용 사이클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1) SLA의 정보전문직에 대한 정의

정보전문직을 정의함에 있어서 SLA의 주제전문사서(Special Librarian)에 대한 정의를 원용해 보면 정보전문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데 전념하는 정보자원전문가이며, 이들 대부분은 기업, 정부기관, 박물관, 병원, 협회, 정보관리 컨설팅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정보전문직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수집에서 벗어나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순조롭게 지원하는 것이다.

(<http://www.asis.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index.cfm>).

2) 미시건 대학의 Jose-Marie Griffiths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전문직의 특성을 5가지로 요약했다.

-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여 가이드의 역할
- 협동
-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기미한 대응으로서 우선 순위 결정
- 능력부여
- 조직의 핵심 역량 파악

3) Chun Wei Choo의 조직의 지식활용 사이클

Chun Wei Choo는 홀리스틱 관점에서 조직은 아래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 환경변화를 파악
- 혁신을 위한 지식 창조
-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

이 세 가지의 명백하고 뚜렷한 과정이 실제로 서로서로 보완하여 커다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주제분야

의 주제전문가(domain expert), IT전문가, 정보전문가(information experts)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그 중 정보전문가는 지식조직화와 교화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

2. 2. 2 정보전문직의 역할

변화된 환경은 정보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전문직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 지식경제 시대를 맞아서 자신의 역할이 갖는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할 기회를 맞고 있다. 변화된 환경이 정보전문직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새로운 일련의 기술을 배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전문직은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접근법, 새로운 정신적 모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전문직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즉 정보수집, 조직, 저장, 검색, 전달 등의 과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보의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새로운 전략적 정보 파트너로서 조직에서의 자신의 포지션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중으로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왜' 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가 이다.

정보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변화하는 외부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매크로 레벨에서의 사회적 변동이 도서관이라는 마이크로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직의 새로운 역할

규정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Lester(1993)는 사서가 전통적인 정보의 관리자(custodian)에서 정보 카운셀러의 역할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Maack은 정보전문직이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Maack 1997)

미국도서관협회나 정보전문직의 전문가 단체도 변화하는 시대가 제기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응하는 정보전문직의 역할 규정과 이들에 대한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전문도서관협회는 1996년에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를 발표했다. 이것은 성공적인 정보전문직에게 필요한 11가지의 직업적인 능력과 13가지의 개인적인 능력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SLA는 미래의 정보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도래한 지식시대에서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정보전문직이 키워나가야 할 핵심적인 영역을 제시했다. 이 핵심영역에는 기업의 정보요구분석, 전략계획수립, 정보정책수립, 지식경영, 디지털 지적 재산권과 자격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련된 역할 등이 포함된다.

2. 2. 3 새로운 직종의 정보전문직

정보전문직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전망은 정보전문직의 현장의 요구에서 극명하게 밝혀진다. SLA의 Career Service Online (<http://sla.jobcontrolcenter.com>)이나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의 구인/구직란의 광고는 비즈니

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사서직에서 얼마나 다양한 역할이 파생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http://www.asis.org/Jobline>).

ASIST의 Jobline Online 사이트에서 소개된 정보전문가에 대한 구인광고에서는 기업의 정보요구를 모니터/조직/분석하고, 1/2차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전략적 정보 액세스와 테크놀러지의 평가, 획득, 도입과 같은 전문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찾고 있었다(<http://www.asis.org/Jobline/info-specialist.html>)

한편 한국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현황 조사에서(김용, 2002), 새로운 분야에서 전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술지원 및 자료 분석 및 컨설팅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조사된 직종 외에 다양한 직종들의 종류는, 웹 서버, 정보검색사, 야후나 한미르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자료의 분류직과 같은 업무들이 기타로서 조사되어졌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은, 문헌정보학 지식 외에 부가되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들로, 어학능력 다음으로 컴퓨터 능력을 꼽고 있으며, 웹 디자인에 대한 능력도 함께 요구하고 있었다.

3.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전망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서, 첫째 교과과정에 대한 전망은 KALIPER 프로젝트(1998~2000)와 구분영(2000)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도서관 대 가상도서관 모델, 이용자 중심 서비스,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과 역할의 대한 전망은 Delphi 연구(1998~2000)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3. 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전통적으로 사서의 가치는 인문학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었으며, 그리고 사람을 돕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정보 제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Butler(1951)에 의하면 사서직에서 인문학적인 가치는, 사서의 "문화적 동기(cultural motivation)"로서 보았다. 이러한 동기는 개인과 지역 단체에게 지혜(wisdom)의 증진을 가져다 주었다(27). 사서는 시민과 사회 조직체에서 이해와 판단을 육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서는, 교육자이고 그들의 충고와 안내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사서는 독서를 육성시키고,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지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지친 일상의 세계로부터 오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델의 기초는 기술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나온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보전문직에 대해 미국정보전문직 단체에서 내린 정의와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자원가(이들의 대부분은 기업, 정부기관, 박물관, 병원, 정보관리 컨설팅 기관 등)는 정보의 가치를 부여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순조롭게 지원하면서 기업의 정보요구분석, 전략계획수립, 정보정책수립, 지식경영, 디지털 지적재산권과 자격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관리자에서 정보카운셀러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서 고객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 전문가, IT전문가, 정보전문가로서 지식조직화와 교화의 기능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편, 현장에서의 요구를 보면 정보전문가에 대한 구인광고에서 기업의 정보요구를 모니터/조직/분석하고, 1/2차 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전략적 정보접근과 정보기술의 평가, 획득, 도입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찾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교육은, 사서직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전문직의 변화된 기능을 포함한 교과과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KALIPER 프로젝트는 1998~2000년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 13개 프로그램과 20개의 학술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교육 내에서 주요교과과정 변화의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KALIPER 프로젝트 27개의 학교가 선택된 학교 내의 변화의 깊이를 관찰하기 위해 사례연구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가적으로 7개 학교는 학장의 의견과 사례연구 학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규명된

경향을 검토했다.

KALIPER 프로젝트 결과는,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과과정 변화에 대한 6가지 중요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기관으로서 도서관과 도서관의 특정업무와 더불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정보환경과 정보 문제에 폭넓게 기반을 두고 있다. (2) 다른 학문과 계속 연계되어야 하고, 중요한 핵심과목은 이용자중심과목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3) 그들의 교과과정 내에 정보기술과목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 (4) 교과과정 내에 주제전문화와 함께 다루어야한다. (5) 더 융통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6) 학부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관련 있는 학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교과과정을 확장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구본영 2000).

첫째, 도서관학 철학의 기반 위에서 과거와 현재에 중요시했던 인문과학, 사회과학, 컴퓨터학에 대한 이론과 원칙 그리고 실제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폭넓은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이라는 학과명칭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핵심과목 즉, 사회적 환경과 정보의 기초(개론과목), 정보축적과 조직, 배포, 정보봉사와 자원, 정보조직관리, 연구방법 과목이 변경되고 있다.

셋째, ALA인가 학교의 대다수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6개의 필수영역 중 정보자원(23%), 정보경영(20%), 정보접근(19%),

정보시스템과 기술(18%), 연구(10%), 정보정책(10%) 순으로 포함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 중심 서비스와 기술과목이 강조되고 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과목으로는 정보추구행위, 윤리학, 정보요구분석, 이용자교육, 특수계층을 위한 봉사, 지식경영이 있고 기술과목으로는 디지털도서관, 정보구조의 시각화,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터넷활용, 네트워크기술, 전자출판, 정보보안, 메타데이터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탐색엔진, 웹자원, 전자정보검색문제, 웹서버관리, 인터넷활용, HTML, 저작권, 개인정보, 보안과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과목들이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전자출판, 정보브로커링, 정보전문화협동, 웹마스터링, 인트라넷경영과 같은 정보심화과목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며 정보학 기술 과목 즉, 웹마스터, 기술코디네이터, 인트라넷매니저와 같은 과목이 강조되고 있다.

3. 2 전통적인 도서관 대 가상도서관 모델

주요연구문제 중의 하나는 도서관 모델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의 77%는 전통적인 도서관 모델 중 우리 생애의 있어서 가상도서관 모델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모델은 몇 가지 심각한 변화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장(ownership/holdings) 전략은 접근전략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접근전략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정보폭발의 직접적인 결과가 되어 왔고, 정보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서관이 상호대차와 협동을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도록 강요받

아 오고 있다. 도서관 경영자들은 그들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Delphi 연구 참여자들의 82%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72.5%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변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27.5% 전문가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자료를 중요하게 여긴다.

전통적인 도서관 모델에서 가상도서관 모델로의 변화를 논할 때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정보를 축적하고 보존하는 도서관의 역할이다. Delphi 연구 전문가의 87.5%가 도서관은 수명이 짧은 정보나 웹사이트에 오고가며 찾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정보자원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도서관은 가치 있는 정보를 축적하고 보존함으로써 사회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3 이용자 중심 서비스

또 다른 연구 문제에서는, 문헌정보전문직의 역할과 그들의 업무성격에 이러한 발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는 기관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이다. 지난 과거에 사서들은 이용자와 필요한 정보 사이에 안내자로서 행동하였다. 인터넷은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 시켰다. 이용자는 더 이상 정보가 도서관의 소유물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더 독립적이고 더 정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다. 도서관/정보센터는 더 많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위

하여 정보를 그들의 전통적인 접근보다는 새로운 정보접근 방법으로 인식시켜야한다. Delphi 연구 참여자들의 85%는 문헌정보학전문가 그들 자신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73.8%는 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수년동안 많은 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기관적 변화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예산상이나 타당한 기술적 업무의 경우, 예를 들면 편목과 수서 업무는 외부자인 계약자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서의 필요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보원들은 부서 내에서 전달되고, 참고 부서와 교육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봉사되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도서 편목 원칙은, 독자가 원하는 즉시 책이 이용자에게 배달되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방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단지 25%이고, 반면에 65%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믿는다. 적시에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 기능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이용자의 데스크탑에서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 메일(e-mail) 접근을 사용함에 따라 참고봉사업무는 극변하고 있다. 자동화 참고봉사시스템은 도서관내에 몇몇 터미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택에서 온라인 참고사서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은 이용자를 위한 부가적인 가치를 가진 다양한 주제와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의 70%는 가까운 미래의

사서들이 자택에서 근무할 것이고, 이 메일과 전화, 팩스를 통하여,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꽤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참여자들의 85%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커뮤니티센터를 통하여 그들의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3. 4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과 역할

네 번째 연구 문제는, 정보화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요구 자체에 적응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전문직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 문제로 나타난다. 이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평가에서 나타나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가장 두드러진 요구 중에 한 가지는, 문헌정보학 전문직들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Delphi 연구원의 95%는 이러한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에 있어서 이용자를 위한 마케팅과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아직도 이용자가 도움을 받으려 도서관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능동적이지 못하였다. Delphi 전문가의 90%가, 마케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고, 조직과 기관 내에서 기술과 봉사의 적극성의 필요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 연구와 문헌 내에서 언급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문헌정보학 전문가 자신들이 도서관/정보센터의 벽을 넘어 자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참가한 87.5% 연구원이,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정보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통적인 도서관과 탐색 전략의 정보기술,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시스템분석으로, 정보혁명의 계속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그들 기술의 독특한 면과,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비전통적인 도서관 역할 몇몇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장(corporate)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여기서, 물리적인 장서유지를 위한 도서관/정보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덜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전문가, 연구자, 훈련자, 지식관리자의 기술은 현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Delphi 연구 전문가의 77.5%가, 현장 내에서 문헌정보학전문직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보다 더 분석적이고 고무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혁명의 또 다른 직접적인 결과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정보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교육시키고, 지원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문헌정보학 정보전문직은, 인터넷 교육자와 안내자가 될 것이다; Delphi 연구자의 대부분인 85%가,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전문직 역할에 교육적인 책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82.5%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직 장래에 대한 질문에서, 단지 전문가의 7.5%만이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4. 결 론

문헌정보학 전문직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도서관/정보센터가 정보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들의 서비스의 부가적인 가치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센터가, 다음 10년대에 가서는 급격히 변화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여전할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과 가상도서관의 모델은 협력 관계 안에서 공존할 것이다. 각각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새로운 도서관모델이 될 것이다. 도서관이 “정보보고”로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보가 불확실한 시대에서, 정보가 단명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가장 큰 가치는 인간지식의 보존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획득해야 하는 새로운 기술과 그들이 채택해야 되는 새로운 역할에 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기술은 교육 역할이다.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정보와 기술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교육자이며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에 기술적 자문과 정보 안내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다. 사서의 기술과 봉사뿐만 아니라 교사와 사서로서의 역할은 그들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취약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문헌정보학 전문직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대중의 인식에 있어서 전문직의 이미 지 변화를 도와줄 것이다.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문헌정보학 전문직 성격의 재조명의 도래는 이러한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명은 확실히 필요하고, 일련의 변화가 문헌정보학 환경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조명은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기술이 전문직과 정보사회 요구와 함께 계속해서 중요하게 남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그들의 기술과 역할에서 중요할 것이고 도서관/정보센터의 벽을 넘어서 자신을 전망할 줄 알아야 된다. 비록 전통적인 도서관 모델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문헌정보전문직의 업무가 될 것이다. 정보기술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모든 고용인들에게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보전문가, 교육자, 탐구자, 연구자, 지식 관리자의 전문가 기술은 고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 전문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문직의 본질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정보혁명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정보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이렇게 필요한 자원을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기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자에게 봉사한다면, 그래서 이용자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면, 21세기 사서직/정보전문직은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영. 1996.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3-50.
- 구본영. 2000. 디지털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정보관리학회지』, 17(3): 93-108.
- 김은경. 2002. 21세기 Information Professional을 위한 경쟁정보 커리큘럼 모델 제안. 『한국비블리아』, 13(1): 133-156.
- 김 용. 2002.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정보전문직 역할 및 요구조건. 『한국비블리아』, 13(1): 167-182.
- Agada, J. 1994. "The librarian personality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35(2): 22-37.
- Baruchson-Arbib, S. & Jenny Bronstein. 2002. "A View to the Futur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 A Delphi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5): 397-408.
- Basefsky, S. 1999. "The library as an agent of change: Pushing the client institution forward." *Information Outlook*, 37(4): 3-8.
- Birdsall, William F. 1982. "Librarianship, Professionalism and Social Change." *Library Journal* 107(February 1, 1982): 223-226.
- Borgman, C.L. 1997. "Now that we have digital collections, why do we need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34: 24-33.
- Coutts, B.E., & Hoffert, B. 1997. "The reference revolution: Wired for the '90s (and) new customers. New Approaches." *Library Journal*, 122(19): 8-11.
- Crosby, O. 2000. "Librarians: Information experts in the information age." *Occupational Outlook Quarterly*, 44(4): 3-15.
- Debons, A. 1984.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A Survey." In *The Information Profession.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Melbourne, Australia (November 26-28, 1984)*. Edited by James Henri, and Roy Sanders. Melbourne: Centre for Library Studies, 12985.
- Douglas, G.V. 1999. "Professor librarian: A model of the teaching librarian of the future." *Computers in libraries*, 19(10): 2-30.
- Durrance, J.C. & Pettigrew, K. 1999. KALIPER: A look a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t the turn of the new century.

- Bowker Annual:266-281. Gooderham, M. 1999. "The Librarian is now cybrarian, the Web is drastically changing their roles as they become navigators of the Internet. at:
<http://www.globetechnology.com/archive/gam/specials/19991029/LLIBR.html>.
- Gregory, V.L. & Ramirez Wohlmuth, S. 2000. "Better pay, more jobs." *Library Journal*. 125(17): 30-45.
- Griffiths, J. M. 1999. "Why the Web is not a library." *FID Review*. 1(1): 13-20.
- Kaliper Report. 2000. Educating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for a new century; Executive summary July 2000. ALISA.
<http://www.alise.org/>
- McQueen, H. & DeMatteo, J.E. 1999. "Intranets: New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 Online, January/February: 15-16.
- Mason. Richard O. 1990. "What Is an Information Professiona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fall): 122-138.
- Moon, M. 1997. Thinking outside the library. Proceedings of the 88th Annual Conference of the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Seattle, June: 15-20.
- Nielsen, Brian. 1989. "The Role of the Public Services Librarian: The New Revolution." In *Rethinking the Librar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GPO: 179-200.
- Sever, S. & Harel, C.H. 1995. "Managing the virtual library: Issues and challenges." *Publications of the Essen University Library*. 18:369-382.
- Winter, Michael F. 1988. *The Culture and Control of Experties: Toward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Librarianship*. Westport, conn: Greenwood.